

'정론직필'을 강조하지 않는 일간지 광고

《조선일보》의 광고

마정미 | 광고평론가

《조선일보》의 기업 이미지 광고는 초현실주의 미술작품을 원용한다. 이 광고는 다른 광고와 달리 정적이고 등장인물이 뒷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청자들은 낯설음과 호기심, 그리고 시각적 투사작용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자연스럽게 모델의 어깨너머로 펼쳐지는 세상을 넘본다.

광고에서 미술작품을 원용해온 것은 꽤 오랜 일이다. 광고가 중세유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존 버거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광고는 종종 명화를 패러디하기도 하고, 아예 작품 자체를 차용하거나 색감과 구성을 디자인에 활용하기도 한다. 대상은 잘 알려진 르네상스기의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때로 초현실주의 작품도 등장한다. 승마복 차림의 기수가 빌딩 옥상을 뛰어넘는 스포츠시계 태그 호이어(Tag Heuer)의 광고는 르네 마그리트 그림을 원용했다. 앤디 워홀이 참여했던 보드카 앵술루트(Absolute)의 광고시리즈 또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변형된 술병을 보여준다.

초현실주의 작품 원용한 일간지 광고

국내에도 초현실주의 작품을 원용한 광고가 등장했다. 바로 《조선일보》의 기업 이미지 광고다. 이제 신문사의 광고도 더 이상 '할말은 하겠습시다'라거나 '똑같은 기사를 쓰느니 하루 쉬겠습니다'는 식으로 정론직필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변신을 꾀하는 것을 보면, 일간지 역시 상품미학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광고는 정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어두운 색조에 미동도 하지 않는 모델, 음악이나 음향효과도 없는 이 CF는 참으로 조용한 광고다. 1편은 정원수가 펼쳐진 배경에 사다리 맨 위에 올라서 있는 중절모 쓴 남성이 뒷집진 채 올라타 너머 먼 곳을 내다보고 있다. 2편은 풍향계가 바람에 움직이는 배경. 뒷집진 남자는 조용히 팔을 들어 닷컴(.com)에 점(.)을 찍고 '인터넷 다음세상까지, 신문 그 이상의 신문 조선일보'라는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이 광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등장인물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등돌린 장면은 광고에서 그리 흔하게 쓰지 않는다. 보통 소비자를 '호명'해 광고의 시공간으로 초대하려면 정면 응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등돌린 광고는 낯설음 때문에 시선을 끈다. 그러나 사실 시청자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

은 암시를 통해서 시청자의 눈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된다고 폴 메사리스(Paul Messaris)는 《Visual Persuasion》(Sage Publication)에서 말한다. 광고모델이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은 토끼구멍에 빠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시각적 투사작용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델의 어깨너머로 펼쳐지는 세상을 넘본다.

낯설음과 호기심으로 시선 끌어

《조선일보》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은 르네 마그리트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중절모 쓴 남자를 연상케 한다. <학교 선생>이나 <복제 금지>를 비롯한 그의 많은 작품들이 관객과 눈맞추기를 거부하고 등돌린 익명의 남성을 보여준다. 응축과 전이를 잘 보여주는 마그리트의 그림은 진중권이 《미학 오디세이(전2권)》(새길)에서 설명한 대로 고립, 변경, 잠정화, 크기의 변화, 이상한 만남, 이미지의 중첩, 패러독스를 통해 표현된다. 그의 작품은 또한 대부분 의식의 상(象)이 허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창문에는 푸른 하늘이 비추지만 그



《조선일보》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은 마그리트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중절모 쓴 남자를 연상시킨다. 시청자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은 암시를 통해 시청자의 눈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된다.

것은 창문유리에 담긴 그림에 불과하고 얼핏 창문틈새로 내다보는 창밖 세상은 칠후 같은 암흑이다. 《조선일보》가 그린 '다음 세상' 대목에서 어째서 마그리트의 그림이 떠오르는 걸까.

마그리트의 세계를 들여다보려면 미셸 푸코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김현, 민음사)나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수잔 개블릭이 쓴 《르네 마그리트》(천수원, 시공사)를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화집을 구해 작품의 질감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 좋은데 컬러 화집인 지라 조금 비싸다. 헌책방에서 구하는 것도 한 방법. 다만 헌 책방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루에 한번 꼴로 나타나서 마그리트의 화집을 찾는다고 하니 쉬운 일은 아닐 성싶다.●